

고성능 AI 보안위협 대응  
관련 금융권 간담회 안건

# 고성능 AI 관련 금융권 보안 위협 대응 방안

2026. 5.

금  
금  
금  
용  
용  
용  
위  
감  
보  
원  
원  
원  
회  
원  
원

# 목 차

I. 현황	1
1. 배경	1
2. 대응 현황	2
II. 대응 방향	3
1. 고성능 AI 보안 위협 선제 파악	3
2. “AI는 AI로 방어하는” 보안체계 신속히 구축	4
(1) 망분리 규제 완화	4
(2) 조직기능 강화	5
3. 금융회사의 AI 보안 위협 체계적 대응 지원	7
III. 향후 추진계획	8

# I. 현황

## 1. 배경

□ 최근, 고성능 AI 발전\*으로 사이버위협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

\* '26.4월 미국 엔트로픽社의 Mythos(미토스), '26.5월 미국 OpenAI GPT-5.5 등

○ 미토스 선공개버전(4월 발표)이 보안에서 탁월한 성능\*을 보인다고 알려지면서, AI가 해킹에 악용될 경우에 대한 불안감 확산

\* 예: 보안성이 높은 OpenBSD 운영체제에서 27년간 발견되지 않은 취약점, 자동화 도구가 16년간 500만회를 검사할 동안 발견되지 않은 취약점 탐지 등

- 특히, 스스로 탐색·판단·실행하는 에이전트(Agent) AI는 공격측의 해킹역량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음

○ 인적 개입이 전제가 된 기존 보안체계의 대응 속도와 범위를 월등히 넘어서는 보안 취약점 탐지 등이 가속화될 우려

□ 고성능 AI에 대한 위협성이 대두되는 한편, AI가 보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

○ 침해위협 탐지, 취약점 분석·관리 등 정교한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AI가 충분한 역할을 수행 가능

□ 한편, 급변하는 AI 환경 속에서도 금융분야는 망분리 규제로 인해 AI 활용이 제한되어 보안역량 강화에 한계

○ 망분리 규제로 외부와의 접점이 최소화되는 측면은 있으나

○ 이로 인해 AI를 활용한 방어체계(취약점 탐지·보안시스템 구축 등)는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한계점("양날의 검")

## 2. 대응 현황

□ (정부) 금융위는 미토스 이슈 제기 즉시(4月 중순)부터 업계·전문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체계적 대응방안 모색 중

- \* 금융위 주관 민간 전문가 회의(4.14일, 4.15일, 부위원장 주재)  
「고성능 AI 보안 위협 상황대응반」 운영(4.28일, 5.7일, 디지털국장)

### 〈※참고〉 보안전문가 및 금융회사 주요의견

- (보안전문가) ▲미토스가 금융회사 시스템의 취약점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음, ▲취약점 점검, 모의해킹 등에도 AI를 사용하여 보안 수준을 높일 필요
- (금융회사) ▲AI기반 사이버공격 위협의 현실화로 인한 파급효과 高, ▲기존 사람 중심의 공격 대비 공격의 속도·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위협할 수 있음

□ (금융사) 금융사·인프라기관\* 등은 자체적인 보안관리 강화 조치\*\*를 취하고 있으나, 아래와 같은 애로사항 토로

- \* 금융결제원, 한국거래소, 예탁결제원, 신용정보원, 보험개발원 등
- \*\* 자체 AI모델 통한 취약점 점검·모의해킹, 공급망 영향분석 등

### ① AI 보안 위협에 대한 신속한 민·관 정보 공유 필요

- \* 민간과 정부가 합심하여 엔트로픽社 등의 논의 동향을 파악할 필요
- \*\* AI 보안 위협의 수준이나 대응요령 등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의 신속 공유 필요

### ② “AI는 AI로 방어”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 개선

- \* 미토스를 필두로 AI가 보안부문 공격·방어 수단에 조만간 활용될 것으로 예상
- \*\* 기존 「로드맵」보다 적극적인 망분리 완화 조치 필요

### ③ 적극적 보안패치 등 독려하는 가이드라인 등 필요

- \* 보안패치는 전산시스템상 오류를 유발할 수 있어 테스트 등 여러 절차 필요
- \*\* 미토스 보고서 공개시기(7월경)에 참여기관(글래스wing)의 보안패치가 다수 배포될 수 있어, 패치에 따른 보안성 확보 vs 시스템 안정성 등 부담감  
↳ 우선순위 설정, 보안을 위한 패치조치시 일정범위내 면책조치 등 필요

## II. 대응 방향

### ① 미토스 등 고성능 AI 보안 위협 선제 파악

- 과기부·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AI 보안 위협 적기 파악
- 금보원·주요 금융사 등 금융권 차원에서도 보안위협 실체 파악을 위해 노력

### ② “AI는 AI로 방어하는” 보안체계 신속히 구축

- ▶ [망분리 규제 완화]
  - 보안강화 목적 AI 활용시 망분리규제 예외 신속 추진
  - 선별된 금융사(AI·보안역량) 대상으로 망분리규제 전면 해제 검토
- ▶ [조직·기능 강화]
  - 민간 기술자문단, 금융권 AI 보안 협의체 상시 운영
  - 금융보안원 內 「AI 연구소」 및 「AI 지원센터」 신설 추진

### ③ 금융회사의 AI 보안 위협 체계적 대응 지원

- AI 보안 위협 대응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·자율점검 지도
- 긴급 보안패치 시 전산불안 등과 관련하여 일정 범위 內 면책 검토
- 소규모·영세 핀테크 기업 AI 보안 전환 지원

## 1 고성능 AI 보안 위협 선제 파악

- 과기부·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\*하여 고성능 AI로 인한 보안위협, 보안 리스크 요인 등 적기 파악

\* 정부(과기부·금융위·외교부 등)와 글로벌 AI 기업(앤티로픽(5.11), OpenAI(5.18)) 간 간담회 실시

- 금보원·주요 금융회사 등 금융권 차원에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AI 보안 위협의 명확한 실체파악 등을 위해 노력중

## 2 “AI는 AI로 방어하는” 보안체계 신속히 구축

### 1. 망분리 규제 완화

#### 1] 보안목적 AI 활용시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조치

(비조치의견서 : [1회차] 6~7월 [2회차] 8~9월 [3회차] 4분기중 (잠정))

##### ○ (대상) 일정한 보안역량 갖춘 금융회사 중 신청사

\* ▲총자산 10조원 이상, ▲상시 종업원수 1,000명 이상(총 49개)

↳ CISO의 정보기술부문 외 업무 겸직금지 적용 기준(「전자금융거래법」§21의2③)

※ 신청사 중 보안역량·AI 활용 준비 부족 시 탈락 가능

##### ○ (조치) 보안목적\*에 한해 정보처리시스템 망분리 규제 한시\*\* 완화

\* ① AI 활용한 내부 취약점 확인, ② 보안 SaaS 솔루션을 통한 방어시스템 구축

\*\* 테스트 소요시간·보완조치 등을 감안하여 1년간 유예

##### ○ (조건) ▲보안성이 검증된 AI 등만 사용, 추가 보안조치 준수

▲테스트 결과 확인된 사항\* 당국보고 + 쏘 금융권 공유 등

\* (예) ▲고성능 AI 보안 위험성 특징, ▲공격용으로 악용할 경우 예상되는 수법, ▲효과적인 방어를 위한 대응 요령 등

##### ○ (절차) 금융사 신청\* → 평가·선정\*\* → 금융위 보고 → 비조치의견서

\* 금융회사 준비상황·테스트 여력 등을 감안하여 2~3회차로 나누어 신청 접수

↳ 1회차(6월) : 10개 이내, 2회차(8월) : 10~20개사, 3회차(4분기) : 미정

\*\* 민간 기술자문단의 보안역량 평가 등을 감안하여 회차별 참여사 선정

※ 미신청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망분리 규제완화 조치가 필요없는 “외부 공격표면 대상” AI 취약점 점검(Blackbox 방식)도 실시 (금융보안원, 7월까지 최대 17개사)

## ② 선별된 금융회사 대상 망분리 규제 전면 해제 검토

(기획형 혁신금융서비스 : 연내 선정 추진)

- 고도의 보안역량·AI 활용능력 등을 갖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 검토·추진
  - 민간 기술자문단, 혁신위 등을 통해 ▲보안역량, ▲AI 활용능력, ▲망분리 대체 보안조치 등을 꼼꼼히 심사·선별
  - 선별된 금융사는 ▲전면적·체계적 AI 보안체계 구축\*, ▲혁신적인 대고객 AI 서비스 마련 등\*\*에 AI를 폭넓게 활용
- \* 일회성 취약점 탐지·외부 SaaS 솔루션 外, AI기반 보안체계로 전면 전환 가능  
↳ ▲AI활용 자체 보안프로그램 마련 ▲AI기반 패치 자동화 등 활용 가능
- \*\* 금융회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▲챗봇 상담·자산관리, ▲여신심사, ▲기업 금융, ▲내부통제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 가능

## 2. 조직·기능 강화

### ① AI·보안분야 전문가·금융업권 등과 긴밀한 협의채널 구축

(민간 기술자문단 출범 : '26.5월~, 금융권 협의체(상황대응반 등) : 운영 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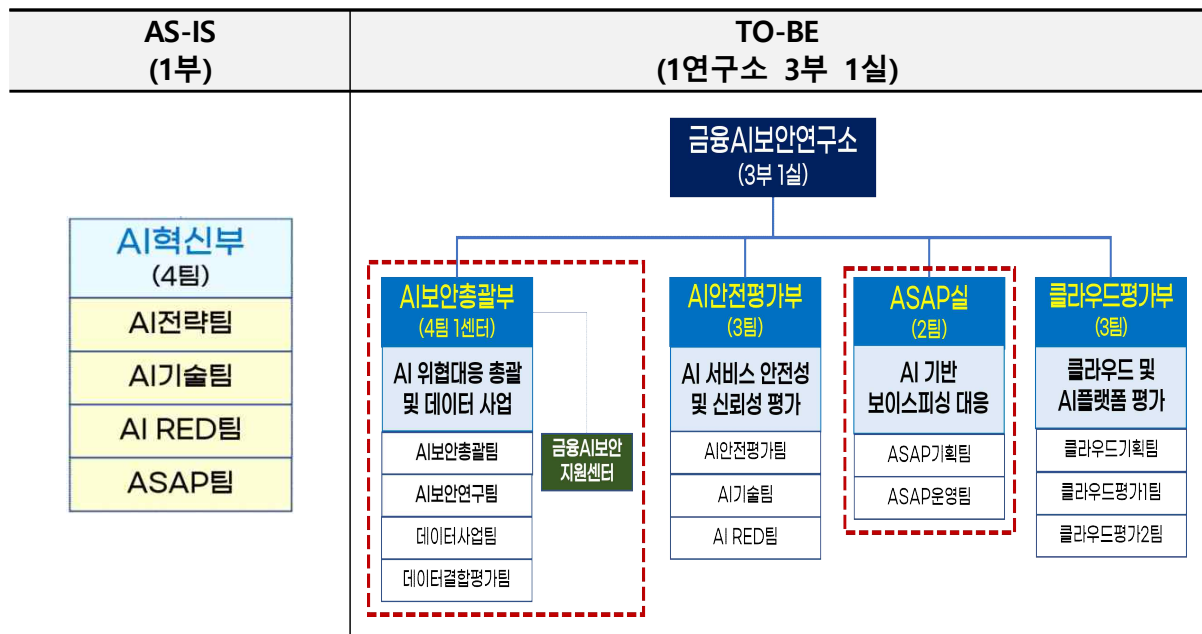
- (민간 기술자문단) AI·보안·정보보호 등 분야에 정통한 학계·보안업계·법조계 등 인사로 자문단을 구성(5월)
  - \* 과기부, KISA, 금융보안원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 포함
  - ▲망분리 완화 관련 자문·평가 ▲고성능 AI 보안위협 전망 및 대응 조치, ▲국내외 최신 동향 등 관련 심도 있는 자문
- (금융권 협의체) 既 구축한 「고성능 AI 보안위협 금융권 상황 대응반」 등 협의채널을 상시적·수시 개최(5월~)
  - \* [1차 회의] 은행 3개사·증권 2개사, [2차 회의] 인프라 기관 5개사
  - AI 보안 위협 관련 금융권 대응상황·애로사항을 청취하고, 최근 국내외 논의 동향, 주요 대응요령·정책 등 신속히 전파

## ② 「AI 연구소」 및 「AI 지원센터」 신설 추진

(금융보안원 조직 개편 : ~'26.6月)

- (AI 연구소) 고성능AI 보안위협 분석, 대응기법·수단 개발, 침해대응 지원 등을 수행하는 「금융AI보안연구소」 신설
  - 금보원 內 AI 침해대응 등 제한된 기능을 하던 조직(AI 혁신부)을 AI 보안과 관련된 전 부문(기술개발·관제·침해대응·인력양성 등)을 포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조직(AI연구소)으로 확대 개편
  - 국내·외 AI 보안 연구소 등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하여 고성능 AI 보안 위협 최신 동향을 신속히 파악·전파

<※참고 「금융 AI 보안연구소」 신설(안)>



금융시보안  
지원센터

- (지원센터) 고성능AI 적극 대응이 어려운 중소 금융사 등의 애로사항 접수, 대응요령 안내 등을 지원하는 전담조직 신설
  - ▲고성능AI 보안위협·대응요령 등 상세 안내, ▲AI 취약점 점검, ▲공격 탐지를 개발·제공 등 다각도 지원

### 3 금융회사의 AI 보안 위협 체계적 대응 지원

#### 1 AI 보안 가이드라인 배포 및 정보보안 대비태세 점검

(가이드라인 배포 : ~'26.6月, 정보보안 대비태세 점검 : ~'26.6月)

- (가이드라인 배포) 고성능 AI 보안위협에 대비하여 쏘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세부 대응요령\* 등을 마련·배포(금감원·금보원)

\* ▲전산자원 현황 전수점검, ▲패치 우선순위, ▲불필요한 외부접점(노후화된 PC 등) 폐기, ▲계정관리·접근권한 업데이트, ▲공급망 관리 강화 등

※ 고성능 AI 보안테스트 등으로 추가 대응요령 고지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가이드라인 추가 업데이트·배포

- (정보보안 대비 태세 점검) 금감원에서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여 금융회사의 적시 대응, 신속한 사고 복구 등 대비태세 점검\*

\* ① IT 위험 관리체계, ② IT 자산 식별·관리, ③ 보안 취약점 관리, ④ 사이버 위협 대응, ⑤ 사고 대응(금융소비자 피해보상 포함) 등 5개 분야로 구성

- 미흡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적시 개선 및 보완을 지도하고, 그 중 일부 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의 실효성 제고

#### 2 긴급보안패치 등과 관련한 임·직원 면책

(금융위·금감원 지도공문 : '26.6月~7月)

- 보안 패치 등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전산시스템 장애에 대해 신속한 복구·소비자 보호조치 전제로 제재조치 감경·면책

#### 3 중·소형 핀테크기업의 AI 보안 전환 지원

- 핀테크기업의 보안점검 비용 부담 등을 지원(핀테크지원센터)
- 금보원을 통해 ▲핀테크기업의 AI 위협 관리체계 수립 지원, ▲취약점 점검도구 제공 등을 수행

### Ⅲ. 향후 추진계획

#### ① 금융회사에 대한 보안목적 망분리 규제완화 조치 실시

① 망분리 규제 완화 대상 금융회사 1차 선정\*(비조치의견서, 6월 중순)

\* ①금융회사 신청접수(5.22~29일) → ②민간전문가 등을 통한 심사·선정(6월 초) → ③ 고성능 AI 기반 취약점 테스트 실시(6~7월)

② 2회차(8~9월), 3회차(4분기 이후) 테스트 순차 시행

※ 고도의 보안역량·AI 활용능력 등을 갖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 검토·추진

#### ② 금융권 AI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

① 금보원 내 「AI연구소」 및 「AI지원센터」 신설 추진(6월중)

② 고성능 AI 보안위협 대비 가이드라인 마련·배포\*(6월중)

\* 보안패치 관련 임직원 면책 관련 지도공문 포함

③ 금융권 정보보안 체크리스트 배포 및 대비태세 점검(6월~)

구분	주요내용	추진일정
① 망분리 규제완화	□ 보안목적 AI 활용시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조치	
	① 금융회사 신청접수	5.22~29일
	② 민간전문가 등을 통한 심사·선정	6월 초
	③ 금융위원회 보고	6.17
	④ 선정대상 금융회사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발부	6월 중
	⑤ 고성능 AI 기반 취약점 테스트 실시	6~7월
	⑥ 2차 선정 절차 수행	8~9월
	⑦ 3차 선정 절차 수행	'26.말
② 지원방안 등	□ 「AI연구소」 및 「AI지원센터」 신설	6월
	□ AI 보안 가이드라인 마련·배포	6월
	□ 체크리스트 배포 및 점검	6월~